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_열룩말의 추억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77학번. 성남노동자생존권확보투쟁 위원회 대표, 성남노동운동연합 정책실장, 노동정책연구소 정책실장, 정해랑_ 경희총민주동맹회 회장(현), 이수병기념사업회 회장(현), 노량진 한샘학원 국어과 강사(현)

나는 지금 노량진에 있는 한샘학원에서 재수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시를 읽어 주면서, 소설을 가르치면서 가슴이 떨리고, 언젠가는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접지 않은 사람이다. 50이 다 된 나이에 무슨 망발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문인이 되겠다는 내 꿈이 어그러진 데에 내 나름대로 깊은 한이 있기 때문이다.

1977년에 나는 문인들을 많이 배출하기로 이름난 경희대 국문과에 입학했다. 그 시절에 나는 어느 문학과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저 꿈이나 꾸면서 현실에는 약간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다닌 국문과에는 당시 신춘문예에서 단골로 심사위원을 하고, 각종 문예지에서 추천을 해주던 소설가 황순원, 시인 조병화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분들은 나를 꽤나게 평가했고, 아마 나는 그분들의 추천이나 심사로 등단했을 것이다. 적어도 긴급조치9호가 없었다면...

물론 내가 한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

는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한다. 내가 아마 그때 문인이 되었다면 그저 그런 너저분한 글들이나 쓰는 인간이 되었으리라. 그런 인간이 되는 것보다 그래도 민족과 역사에 그리고 인간에 조금이나마 애정을 갖고 사는 지금의 내가 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나에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는 한 인간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군사독재의 잔인함과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고 싸워 가면서 단련되어 갔던 긴 세월이 있었다. 나는 3학년이던 79년 가을에 긴급조치9호로 구속되었고, 박정화가 죽던 10, 26을 성동구치소에서 맞이했다. 어찌면 젊은 날에 약간 외도를 했던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던 첫 경험은 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첫키스의 날카로운 추억’이 되어 나의 운명의 지침을 되돌려 놓고 말았다.

나는 그 뒤 문학을 잊어 버렸다. 아니 잃어 버렸다고 해야 할까? 80년에 복학하였다가 다시 제적되고, 구속되고, 석방된 뒤 다시 수배되고, 그리고 구속되고, 또 석방된 뒤 노동현장에 들어갔다가 거둬지는 수배 끝에 93년이 되어서야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변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긴급조치9호였다.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긴급조치9호. 인간성 말살의 상징인 긴급조치9호.

1978년 9월의 어느 날. 하늘은 한국의 가을날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겠다는 듯 유난히 푸르렀다. 연병장에 교련복을 입고 모인 학생들은 소풍이라도 가는 양 한껏 들떠 있었다. 학생들의 손에는 M1 소총들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속에 살벌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당시에는 학생들의 대표를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으로 부를 정도로 군사문화가 학생들의 모든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소총을 들고 있는 것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으로 느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학생들이 그러한 군사문화를 좋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학생들은 대부분 그러한 군사문화를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냥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데에도 익숙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익숙함은 이제 더이상 그것이 학생들에 대한 통제의 힘으로 발휘되기 힘든 시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그때 군사문화는 최고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런 만큼 내부에서 이완되어 가는 조짐이 뚜렷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물론이지만 시키는 쪽도 그저 시간을 때우고 형식만 갖춘다는 생각이 역력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학생들이 가야 할 곳은 태릉이었다. 그때만 해도 태릉에 있는 배밭은 젊은 사람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 받는 곳이었다. 비록 총은 짊어지고 교련복을 입은 채 줄을 맞춰 걷는 것이지만 태릉이란 곳으로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거닌다는 것은 '고래 사냥'이나 '왜블러' 같은 곡조 차도 금지곡이 되는 숨막히는 현실에서 그래도 한 가닥 신선함을 주는 일이었다.

대열이 정돈되고 단상에 높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뒤 총장 훈시가 시작됐다. 경희대는 매월 한 번씩 민주시민특강이란 걸 본관 앞 분수대나 노천극장에서 하곤 하였다. 말이 민주시민특강이지 조영식 총장이 일방적으로 훈시하는 자리였다. 고등학교 때의 조희와 다를 바 없는 자리였는데 출석표를 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에 익숙해 있었던지라 교련 행군 때 총장이 훈시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별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저 요식 행위니까 시간만 가라는 식으로 학생들은 총장 훈시를 받아들였다.

총장 훈시가 막 시작되고 총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을 집어던지면서 외치는 소리가 났다.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지금 기억에 뚜렷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신철폐, 독재 타도' 였던 것 같다. 사학과 대열이었다. 신용남이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더니 여기저기서 용남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학생과 직원들이야 우리가 아는 얼굴이니까 금새 알아볼 수 있었다. 물론 그들도 달려들었다. 그 당시 학생과 직원들은 정보경찰에 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낯선 이들도 여럿 달려들었다. 당시 학교에 상주하고 있던 정보기관 요원들과 청량리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었을 것이다. 학교 내에 기관원이 상주해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순식간에 많이 나타날 줄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다.

용남이는 그들에게 머리카락을 휘어잡힌 채 비참하게 끌려가면서도 구호를 외쳤다. 그 모습은 마치 끌려가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짐승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은 채 장승처럼 서 있기만 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두세 명 정도가 따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학생과 직원이나 기관원들의 재빠른 대처와 그에 따라 비참하게 끌려가는 용남이의 모습을 보고 이어서 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밖의 학생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비참함을 느낀 사람도 있었으리라. 때로는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바람이 한번 불다간 정도로 생각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아무튼 잘 길들여진 유신의 학생들은 그렇게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그 순간을 넘겼고, 중단된 총장의 연설이 끝난 뒤 행군은 진행되었다. 나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었지만 얼마전 읽었던 최인훈의 <광장>에 나오는, 이명준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내뱉었던 말들이 자꾸 입에서 맴돌았다. "조국의 하늘은 곱기가 지랄같다..."

유난히 푸르러서 알뜰기까지 한 가을 하늘을 보며 걸으면서 며칠 전 용남이와 학교 앞 막걸리집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이 되새김질되었다. 우리가 작은엄마집이라고 부르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용남이와 나는 1학년 때부터 자주 술을 마시곤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현실을 고민하였고, 이전 세대는 고민거리가 뚜렷하게 있었는데 우리는 뚜렷한 고민거리가 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황당무계한 생각까지도 했었다.

용남이는 백단이라고 하는, 경희대에서는 꽤 오랜 전통을 지닌 이념서클에 속해 있었다. 이념서클이라고 해봤자 그냥 세미나 정도 하는 곳이었는데 수준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안다. 물론 시위는 꿈도 꾸지 못하는 곳이었다. 용남이가 그 서클에 나도 같이 들어가기를 권했지만 나는 문학을 하고 싶었으므로 별로 마음에 내켜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용남이가 1학년 말쯤부터 언행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나에게 한 선배를 같이 만나자고 하였다. 그래서 경희다방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별로 많이 오지 않는 클래식 다방에서 한 선배를 용남이와 함께 만났다. 이 선배를 통해 경희대에 홍사단 아카데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홍사단 아카데미는 그 당시 경희대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아서 그냥 비공개 조직으로 있는 상태였다. 주로 고등학교 때 아카데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알음 알음으로 만나서 조직을 했는데, 비공개 조직이라고 해서 당시 조직이 잘 되었던 대학의 비공개 조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조직은 운동하는 조직이 아니고, 그냥 공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책이나 함께 읽고 울분을 토로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78년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사단 아카데미가 ‘기리기’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E. H. 카아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텍스트로 해서 세미나를 했다. 이 세미나에 용남이의 권유로 참석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 기리기의 회장은 하석태(영문 76학번)였는데, 홍사단 아카데미가 공개 서클로 등록된 데는 그의 적극적인 성격이 한몫을 하였다. 물론 학교측은 기리기가 홍사단 아카데미인지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전과는 다른, 경희대에도 진정으로 학생운동을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민청학련 때 강제 징집되었던 이상희(국문 72)였다. 그가 민청학련 때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대 뒤에 기독교 운동권과 연계를 맺으면서 상당히 정력적으로 그러면서도 노련하게 학내 비공개 조직을 만들어 나갔다.

기리기의 공개 세미나에는 그때 경희대에서 말쑥한 한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용은 뒤죽박죽이었다. 이상희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묶으려고 했다. 제일 처음 이상희에게 조직되어 사람을 엮어 나간 사람이 오인택(법학 77)인 것으로 안다. 이상희는 오인택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조직해 나갔는데, 기리기의 세미나에서 그는 내용도 빈약하면서 현학적이 되어 버리는 토론 내용을 실천 위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학생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다. 실천을 생각하기에 당시 경희대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 있었다. 기리기 활동을 하면서 이상희와 오인택은 사람들을 골라서 연합으로 여름 농활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났다. 그러면서 가을이 되고, 이상희는 아마 시위를! 통해서만이 경희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하여 용남이가 관련된 시위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안다.

시위가 있기 얼마 전 용남이와 술을 마셨을 때 용남이는 자꾸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불렀다. 사실 당시 경희대에서는 시위를 하기 전에 비공개 조직에서 이념적으로 조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자연히 감성적인 접근이 강했다. 거기에 많이 사용된 것이 집단 MI와 노래였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용남이의 표정은 자못 비장하기까지 했다. 그런 분위기를 느낀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용남이에게 한마디 했다. 나는 너의 생각

을 존중하지만 나에게는 문학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용남이는 내 말을 듣고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는 술자리를 끝내고 술집문을 나설 때 나에게 “네가 문학관이 있다면 나는 역사관이 있다”고 하였다. 나에게 그 말은 쇠망치로 나의 머리를 친 격이었다. 머리가 멍했다. 아무 반론도 하지 못한 채 서로 헤어졌다. 그 며칠 뒤 용남이는 시위를 한 것이었다.

나는 교련 행군을 다녀온 뒤 시회를 앉아 누웠다. 집에서는 고된 행군을 해서 몸살이 난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뭔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심리적 갈등 때문이었다. 그것은 친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낸 슬픔이기도 했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었고, 그런 현실에 대한 울분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아마도 부끄러움이었을 것이다. 집에서 누워 있는 동안 얼룩말이 사자에게 뜯어 먹힐 때의 장면을 자꾸 떠올렸다. 얼룩말은 떼를 지어 사자를 방어하다가도 한 놈이 물리면 그냥 멍청히 서서 풀을 뜯으면서 주변에서 서성대었다. 나는 얼룩말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친구가 비참하게 끌려가는 데 아무 짓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문학이란 말인가?

며칠 뒤 학교에 가자 학교가 술렁이고 있었다. 시위는 용남이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던 것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갔다. 용남이가 총을 던지며 외치다 끌려간 시간에 한 해 선배인 영문과의 하석태, 사학과의 신명식이 문리대와 정경대에서 시위를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잡히지 않고 학교를 빠져 나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당시 축제 기간에 탈출판에 이들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갔고, 학교 앞 술집에서는 이들의 영웅담에 대한 이야기가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안주거리로 올랐다.

이미 그 시절에 몇몇 대학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것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 내가 1학년 때인 77년 가을에 연대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는 고등학교 동기를 통해 들어 알았는데 우리를 굉장히 흥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 뿐이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괜히 짹짹게 지금은 4. 19 때와 다르다는 식으로 초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레코아 희생만 있을 뿐이라는 애늬은이들도 있었다. 나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78년 6월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가두시위의 소식을 접하자 그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 그것은 한마디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 사실 그때 학생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데모하다 잡혀가면 거의 병신이 되어 나오는 걸로만 알았다. 그런데 서울의 한복판에서 시위를 하다니.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학생들은! 으레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덧붙여서 말하기도 하곤 하였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 분위기가 깔린 상태에서 바로 우리 학교에서 시위가 있고, 그것도 몇 차례를 신출귀몰하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한다는 것을 들으니 분위기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내게도 연락이 왔다. 오인택이었다. 그가 이상회를 연결해 주었다. 그리고 학번별 비공개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전과는 달리 나는 흔쾌히 응했다. 더이상 말도 안 되는 문학관 어찌구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경희대의 비공개조직은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한 팀씩 만들어졌다. 그 해 가을에는 내가 속했던 2학년 조직이 학내에 유인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였다. 성공이었다. 학교와 청량리경찰서측에서는 살포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소문에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필적을 조사하기 까지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활동이 없었던 만큼 꼬투리도 잡힐 것이 없었던 우리가 그들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해 겨울이 되면서 3학년 팀은 한 명을 제외하고 와해되었고, 2학년 팀도 오인택과 나를 제외하면 다 빠져 나갔다. 그렇게 해서 1, 2, 3학년이 모두 이상회와 함께 한 팀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저녁이면 면목동에 있는 동일교회에서 YH노동조합 대의원 및 열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이학을 하였다. 이때 합숙이나 야학보다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는 데 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은 공판 방청이었다. 하석태, 신명식, 신용남의 공판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가서 보면서 결의를 다졌다. 이제는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용남이의 눈길을 피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2심 때는 용남이와 악수까지 할 수 있었다. 그때 용남이가 나한테 재빨리 무엇인가를 주었는데 교도관한테 빼앗기고 말았다. 나중에 들으니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십자가였다고 한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새 학기가 되어서 우리는 여러 서클로 들어갔다. 그리고 새로운 서클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79년부터는 경희대에도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이 틀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만든 역량으로 80년의 봄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경희대 운동을 단일대오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긴조시대의 경희대 운동은 매우 미약했지만, 오히

려 그 미약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후 강인해질 수 있었고, 다른 대학과는 달리 강인한 단일대오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의 민주동문회의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긴조호 세대의 최대 과제는 박정희의 진면목을 역사 속에, 대중 앞에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코 이 과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정희는 단지 친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의 뇌수와 같은 인물이다. 그의 허상을 깨부수고, 그가 얼마나 우리 역사의 질곡이었는지 밝히는 것, 그리하여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우리 역사가 제 갈 길을 제대로 올바르게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